

## 육군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증진과 민군관계의 발전\*

양승목\*\*

민주화 20년을 맞아 한국 사회가 '민주화 너머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민주적 민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군에 대한 불신과 비하의 풍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풍조를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민군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육군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육군의 사명과 핵심가치를 전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둘째, 육군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셋째, 군 조직의 책임성을 완화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의 대외 개방성을 확대하고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민군관계, 소프트파워, 민주화, 육군문화혁신, 국방개혁 2020

\* 이 글의 초고는 2007년 6월 28일 육군본부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Soft Power로서의 민군관계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언론학사, 언론사상사 등이다. E-mail: smyang@snu.ac.kr

## 1. 들어가는 말

올해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민주화 20년을 평가하는 행사들을 잇달아 개최하였다. 민주화 20년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급 선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 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비정부기구(NGO)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된 것도 빠트릴 수 없는 변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변화는 민군관계의 변화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권력의 군대였고 때로는 권력 그 자체였다. 제1공화국 시기의 군이 부패한 정권에 종속적인 권력의 도구였다면, 5·16 쿠데타와 함께 군은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을 거치는 동안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부 엘리트들은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의 공고한 유신체제가 무너졌지만, 12·12 쿠데타로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여망은 또 다시 깨어지고 말았다. 12·12 사태를 통해 군을 장악한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정치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로써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 동안 군은 한국사회를 지배한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군의 위상은 1987년을 분수령으로 크게 변하였다. 민주화의 거센 물결은 군이 '정치개입'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민군관계를 정립하여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3당 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군의 대표적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는 숙군을 감행하였다. 스스로를 '문민정부'로 부를 정도로 문민지배를 강조했던 김영삼 정권에서 군 우위의 민군관계는 무너지고 민간이 군을 통제하는 이른바 '문민통제'의 시대

가 열리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수 년 만에 문민통제가 확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획기적인 일이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30개가 넘는 국가들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헌팅턴(Huntington, 1991)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이라고 명명해 바 있다. 이 ‘제3의 물결’을 탄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 과정을 겪은 아시아와 중남미의 국가들 가운데는 군이 여전히 ‘손댈 수 없는 (untouchable)’ 집단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를 지배했던 군의 영향력을 한국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제거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화 20년을 맞은 지금, ‘문민통제’의 민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해졌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으며, 쿠데타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군은 국민이 선택한 민간정부에 충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현재 육군은 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민군관계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제안한 개념으로 강제나 보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지칭한다.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및 제반 정책의 매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군에 적용한다면 군의 소프트 파워는 군대 내부의 문화와 군이 추구하는 목표 및 제반 정책의 매력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 마디로 군의 문화와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크기는 달라진다.

민주화 20년을 맞아 한국 사회가 ‘민주화 너머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민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젊은 세대를 비롯해 우리 사회 일각에는 군에 대한 불신과 비하의 풍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풍조를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군으로 만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일이 긴급하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현재 소프트 파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에 기초한 민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민군관계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한국의 민군관계 변화

민군관계란 용어는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먼저 정치학적 관점에서 스타인(Stein, 1963)은 민군관계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대지도자와 민간정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는 민군관계를 비교적 좁은 의미에서 본 것인데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군관계는 군대의 정치개입과 문민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노위츠(Janowitz, 1964)는 민군관계를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간의 관계로 파악하고 서구국가들과 신생국가들 각각에 대해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민군관계 유형을 서구국가들의 경우에는 귀족적 모델, 민주적 모델, 전체주의적 모델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신생국가들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개인의 통제, 권위주의적 대중정당의 통제, 민주주의적 경쟁 및 준경쟁 체제, 민군연합체제, 군사과두제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한편 헌팅턴(Huntington, 1957)은 민군관계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았는데, 그는 민군관계를 상호의존적 요소로 구성된 체제로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민과 군 사이의 권력과 전문직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결합관계에 따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헌팅턴과는 조금 다르게 반 두른(Van Doorn, 1968)은 군사적 차원에서 민군관계를 군과 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관계로 보았는데, 즉 민군관계는 군대조직과 국가기관의 관계, 군과 국민의 관계, 군 장교단과 민간 엘리트의 관계, 군부와 민간 이익집단의 관계 등 네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가 군과 국민 대중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은 주로 시민군이나 게릴라군이 대중의 충성과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소 군사적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

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이 민군관계의 한 축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대중이 인식하는 군의 이미지가 군 정책의 중요 고려요소로 꼽힐 수 있는 학문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군관계는 넓게는 군과 사회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에서부터 좁게는 군 지도자와 민간 엘리트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김병조(2006)는 '21세기 한국 민군관계의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한 연구에서 민군관계를 군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대사회(military society)와 시민사회(civil society) 간의 관계를 함께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온만금(2006)은 비교적 좁은 의미에서 군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군관계를 군의 정치개입과 문민통제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즉 그는 해방 후 한국 역사를 국가형성기, 국가근대화기, 국가성숙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있어서 민군관계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해방 후 1950년대에 이르는 국가형성기의 한국군은 군직업주의가 미비했고 신가산관료제 하에서 군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한편 국가근대화기는 5·16 쿠데타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데, 근대화와 경제발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이 시기에 군직업주의가 발전했으나 군의 인사가 지연과 학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가산관료제 하에서와 같이 통치자와 군대 간에 절대적 충성과 복종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군대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12·12 사태를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이 심화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성숙기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시대를 의미하는데, 군의 탈정치화가 진행되면서 민군관계는 군의 전문직업화와 문민통치의 특징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 제10호는 5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화시대 한국의 민군관계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가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민주국가형(democratic state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조영갑, 2005).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며 따라서 선진민주국

가형의 민군관계는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에 대한 확고한 문민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과 군이 화합하고 협력할 때 군의 존재이유인 국가안보가 확고히 지켜질 수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확립은 민주화가 가져온 커다란 선물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증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문민통제(civilian control)가 단순히 ‘민간인에 의한 군대의 통제’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 보다는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병조(2006)는 21세기 한국의 민군관계를 모색하는 글에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정치 엘리트, 군 엘리트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모두가 협력할 때만이 가능하다”(p. 76)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주적 통제에 의한 민군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만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군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의 협조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군 내부의 노력은 민주화 초기부터 일찍 시작되었다. 1988년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은 군의 정치적 개입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제2창군의 자세로 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 국방행정의 과감한 공개, 군대생활과 관련된 갈등 요인의 해소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온만금, 2006). 이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군의 노력은 특히 육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1990년 육군 인사참모부는 군 위상정립을 위해 군복무신조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육군으로서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역군이 되고, 둘째,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지상전의 승리자가 되며, 셋째,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등”(온만금, 2006, p. 47)을 결의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문민통제의 확고한 전통을 쌓아가는 동안에 군은 점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1996년 홍보처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조사’와 2001년 국정홍보처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조사’는 군대를 포함한 주요 기관 11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군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전체 2위로 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 교육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김병조, 2006). 군대

보다 신뢰도가 높게 나온 기관은 ‘사회/시민단체’가 유일했다.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결과는 비슷하다. 한국정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해서 2007년 6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2.7%가 군대를 ‘신뢰한다’고 답변해 조사대상 10개 기관(단체)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조선일보, 2007년 6월 2일자, A8면).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군대 다음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언론(60.3%), 시민단체(58.4%), 경찰(51.7%), 법원(51.3%), 공무원(38.8%), 대통령(34.7%), 국회의원(19.2%), 정당(14.4%), 국회(13.1%) 순이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놀라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에서 인용한 조사결과 외에도 최근 5~6년 동안 국민신뢰도를 평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군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시대의 민군관계가 점차 불신에서 신뢰의 관계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소프트 파워로서의 육군

민주화시대의 민군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군바리’, ‘군핍탈’, ‘조인트’, ‘원산폭격’, ‘얼차레’, ‘뽕뽕이’, ‘짬밥’과 같은 비속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불신과 비하의 풍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는 “군에 가면 인생 2년 썩고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군 또는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들도 군 또는 군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은 군 또는 군인의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김태웅, 2007).

<표 1>에 인용된 군(군인) 이미지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거의 예외없이 군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군을 직접 경험했거나 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미군의 경우 월남전을 통해 형성된 타락하고 퇴폐적인 이미지에서

〈표 1〉 군(군인) 이미지에 대한 기존 연구

저 자	제 목	주 요 내 용
육군사관학교 (1983)	군인 이미지 조사자료	군인의 자기상과 국민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한국군과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파악
서민수(1995)	한국 신문에 나타난 군 이미지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군 이미지를 연구
김기석(1988)	대군경험이 군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	군 경험이 증가할수록 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전환된다는 가설을 입증
강덕찬(1993)	군 이미지 유형과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	군 이미지의 내용과 유형을 분류하여 이미지의 형성요인을 밝히는데 주력
황대일(1996)	대학생의 대군 이미지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 이미지의 변화에 주목
조세영(2000)	공군에 대한 내·외부 공중의 이미지 비교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한 공군의 내·외부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서정근(2000)	국내 신문에 반영된 군 이미지와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	신문에 반영된 군 이미지와 신문별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
김주찬(2003)	한국 청년세대의 군 인식 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군 복무방식과 선호하는 군부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문을 통해 군 이미지를 연구

벗어나기 위해 10년 이상 이미지 개선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미군은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뿌리내린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앞에서 인용한 군대 관련 비속어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 군 관련 기사에 붙는 리플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매우 많음을 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 군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육군은 ‘국방개혁 2020’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육군문화혁신(Army Soft Power Improvement)’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하려면 ‘군 구조개편을 통한 하드 파워의 증강’과 ‘육군문화혁신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증진’이 필수적이다(육군본부, 2007). 즉 육군구조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바뀌고, 사회적 환경이 인간존중, 자율과 참여, 전문성이 중시되는 문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육군문화도 사람 제일주의, 질 위주, 자율과 책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군대문화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의 강력한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 ‘문화혁신’의 추진 목표는 “군구조개편(하드 파워 증강)에 부합된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육군 구성원 모두가 머무르고 싶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매력있는 육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소프트 파워 개념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1990년에 출간한 그의 책 “이끌고 나갈 의무(*Bound to Lead*)”에서 처음 제시했는데, 그는 여기서 파워의 유형을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후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는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빈번히 인용되었는데, 나이 교수는 2004년에 이 용어를 이름으로 채택한 책에서 소프트 파워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파워를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Nye, 2004, p. 24)으로 정의하면서,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며 “한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제반정책 등의 매력에서 비롯되는 것”(p. 9)이라고 말한다. 또 소프트 파워는 행위 면에서 보자면 “한 마디로 매력적인 파워”이고, 자원 면에서 보자면 소프트 파워 자원은 “그런 매력을 만들어 내는 자산”(p. 32)이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주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사용한 나이 교수는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그 나라의 대외정책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한 국가의 정책이 정당하고 그로 인해 그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매력에 느끼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강화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국제정치가 아닌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두려운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경찰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굳이 어둡고 외진 길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만나면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회에서 경찰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육군문화를 구성하는 정신적 요소와 운영요소를 통하여 발현되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육군문화'란 "육군 조직내에서 지배적으로 표출되는 가치, 의식, 신념, 기질, 행동양식 등 정신적 요소와 구성원의 능력, 리더쉽, 운용술, 각종 제도 등 운영요소의 총칭"을 말한다(육군문화혁신기획단, 2007). 따라서 육군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첩경이 바로 '육군문화를 구성하는 세 요소를 혁신하는 것'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육군문화혁신' 프로그램은 육군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

#### 4. 소프트 파워 증진 방안: 새로운 민군관계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개편에 따른 하드 파워(hard power) 증강과 함께 소프트 파워의 증진이 필수적이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군 조직의 정예화 정책과 맞물려 군의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력 구성에 있어 현행의 징병제가 유지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모병제가 강화될 것이고 또 첨단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의 확보가 필요한데, 국민과 정치권의 지원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육군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면, 즉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면 누가 군을 신뢰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고된 군복무를 자청하겠는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프트 파워 강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육군이 추진하는 소프트 파워 증진 방안은 한 마디로 육군문화의 혁신이다. 앞에서 언급한 '육군문화혁신' 프로그램이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사회문

화적 환경이 인간존중, 자율과 참여, 전문성 등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이 종래의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 구조로 획기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육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문화혁신 프로그램은 혁신 분야를 정신문화, 리더십문화, 복무문화, 병영문화, 제도혁신 등 다섯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추진방향을 세우고 있다. 즉 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각 구성원들의 정신요소를 혁신하고, ② 구성원을 통합하여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혁신하며, ③ 직업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무의식과 자세를 혁신하고, ④ 구성원의 활동과 리더십이 발휘되는 공간인 병영을 혁신하며, ⑤ 미래 군구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용시스템(제도)을 혁신하는 것이다(육군문화혁신기획단, 2007). 육군은 이런 방향 아래 최종적으로 32개의 문화혁신 과제와 27개의 제도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문화혁신을 위한 전략과제의 예로는 지시문화, 회의문화, 언어문화, 경례문화, 체력단련문화, 훈련문화, 출퇴근문화, 상부상조문화 등이 있다.

육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군문화혁신 프로그램은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혁신을 통해 육군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소프트 파워를 키워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민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 증진 방안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인 셈인데, 그것은 결국 국 군이 기존의 부정적(negative)이고 딱딱한(hard) 이미지를 벗고 긍정적(positive)이고 부드러운(soft) 이미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권위주의시대의 역사적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 군은 안타깝게도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며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민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군의 이미지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명예를 추구하는 희생적인 집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육군이 실행해야 할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육군의 사명과 핵심가치를 전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에도 군은 자신에

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지키고자 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군의 전 장병이 확고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야 군 내부의 단결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월남전이 끝나고 미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미군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가치의 중요성이었다고 한다. 즉 미군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국민 불신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육군은 “국토방위에 헌신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육군본부, 2006, p. 26). 또 2002년에는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를 육군의 5대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김경규(2007)에 의하면 이런 5대 핵심가치는 ‘5급의식’, ‘5대의식’, ‘장교단 정신’ 등과 같은 총장 강조사항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군의 가치교육은 지휘관의 강조사항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는 변해도 군의 핵심가치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육군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 혹시 육군의 최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육군의 전 장병이 확고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 2) 육군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육군문화혁신 프로그램이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육군 내부의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문화로 점차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조직이든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조직문화 및 리더십문화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육군이 혁신하고자 하는 5대 분야 가운데 리더십문화, 병영문화, 복무문화와 모두 관련이 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인간사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3대 문화혁신의 핵심에는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육군의 소프트 파워

정책 자체가 안으로는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의 문제이고 밖으로는 육군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육군 내부에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부하중심의 리더십’, ‘우리 중심의 리더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되어 왔었다. 리더십 문제는 결국 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휘관과 부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지금까지 군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지휘관은 부대 능력과 소요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부하는 상관의 명령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건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직적인 군 구조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그로 인한 병폐가 심각하다. 물론 최근 들어 군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수직적, 일방적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군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소대장이 사단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리려면 여러 단계의 지휘관 라인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군 내부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병사라도 원한다면 자신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참모총장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상의하달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육군 현실을 보면 비공식적인 게이트 키핑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위계질서 문란이나 지휘체계 문란 등의 군 규정을 근거로 지휘라인을 무시한 의견제시를 제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의 하의상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 놓고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아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따라서 육군의 리더십문화, 병영문화, 복무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군을 지배하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신세대 장병들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원하고 있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사리 불만을 갖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명령

을 쉽게 받아들이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대화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면 더욱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토론과 대화의 문화를 바탕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군대문화를 육성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병영문화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3) 군 조직의 억압성을 완화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 군은 군 조직의 특수성에만 집착하여 군 조직을 '기계적 관료조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또 이러한 성향이 장기화되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져 '획일적이고 경직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의 관리계층인 간부들이 부하나 병사를 대함에 있어 지나치게 억압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군의 지휘행위나 교육운영도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자극과 반응'의 기계적 행동주의 논리에 빠져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군에는 설득보다는 억압에 의존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지시와 명령을 남발하는 일방통제형 지휘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 각종 교육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인간 본능이나 심리에 관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 개념만을 적용하는 등 마치 군인에게는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강요가 불가피한 양 잘못된 가치와 논리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군 조직이 운영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조직의 하부에 집중되고 특히 말단의 병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해마다 이십만 명에 달하는 제대병들이 억압적이고 불쾌한 경험을 안고 사회에 복귀한다면 군의 소프트 파워는 결코 증진될 수 없다.

### 4)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만약에 그들이 하버드 대학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

다면, 외부인들이 하버드 대학을 매력적인 대학으로 존경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의 소프트 파워 크기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의 크기에 비례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을수록 그 조직의 소프트 파워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육군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면 육군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군인을 전문 직업으로 택한 장교 등 직업군인들의 직무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우리 육군의 현실은 직업군인들의 자긍심과는 거리가 멀다. 야전 중·소대장의 근무환경을 분석한 김경규(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분석대상 간부들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잦은 회의와 검열·지도방문·후속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부대지휘가 곤란하고, 운영비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장교로서의 권위 실추로 복무의욕 상실, 주거생활의 불편과 기본권 미보장으로 '삶의 질'이 열악하고, 상급지휘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휘체계의 혼선을 느끼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병사들의 생활관보다 열악한 BOQ와 BEQ, 병사식당보다 못한 간부식당은 '거주'의 개념이 아닌 '수용'의 공간으로 이미 휴식처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여서, 초급간부들의 후생복지 문제가 심각하며 그들로 하여금 직업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으로서 기본적인 거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5~6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선풍기 한 두 대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근무여건 속에서 군 조직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과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장병들이 자신의 신분과 임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육군의 소프트 파워는 저절로 커지게 된다.

- 5) 군의 대외 개방성을 확대하고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육군의 소프트 파워는 곧 육군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육군이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의 목표는 곧 군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유산인 '부패하고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인 집단' 으로서의 군 이미지를 청렴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집단' 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겠다는 것이 소프트 파워 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하드 파워의 강화에 몰두해 왔던 육군이 소프트 파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군이 이제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군과 공중의 관계 즉 민군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조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군은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인해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을 기밀로 묶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성능과 제원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대외 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도한 기밀주의로 인해 군에서는 무엇을 홍보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단적인 예로 2005년 창설된 국군 TV의 프로그램을 보면 세계의 군사무기체계, 세계의 특수부대 등 우리 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다. 미군은 자신들의 강함을 알리기 위해 첨단무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국군방송에서조차 한국의 첨단무기와 막강한 특수부대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군을 개방하고 국민에게 적극 알리려는 전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군 이미지 홍보는 명확하게 정의된 홍보 목표와 목표수용자(target audience)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홍보 대상 수용자를 입영 대상자와 일반국민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홍보 목표도 달라지고 그 목표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군에 대한 직접경험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대해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요즘 C세대(Content Generation)라 불리는 디지털 시대 젊은이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이 신세대는 메일, 채팅, 음성 문자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술 매체를 활용한 정보교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개인적 고충 등 웬만한 것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 한다. 따라서 신세대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전략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 5. 맺는 말

1987년 민주화의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5·16 이후 30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배적 세력으로 군림했지만 민주화와 함께 군의 위상은 하락했다. 1993년에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언론인 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설문조사 결과는 군의 위상 하락을 여실히 보여준다. 1993년이라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이다. 3당 합당이 라는 보수대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은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하나회 체결’이라는 숙군작업을 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언론연구원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정치인(38.7%), 언론인(21.8%), 관료(19.5%), 기업인(12.6%)의 순이었고, ‘군인’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1.6%에 불과했다(한국언론연구원, 1993). 이와 비슷한 결과가 12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언론인 조사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신정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감소한 집단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군인’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46.3%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17.6%가 선택한 ‘관료’였다. 반면에 “신정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커진 집단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군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0.3%), 가장 많은 32.7%의 응답자가 ‘언론인’이라고 답했다.

민주화로 인해 권력관계가 급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급격한 위상하락과 함께 군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부심마저 추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선진국일수록 군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존경심은 크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편이다. 이제 우리 군은 민주화시대를 맞아 역사적 부채를 떨쳐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

군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 증강 정책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문화혁신 프로그램이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민군관계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덕찬 (1992), “군 이미지 유형과 형성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규 (2007), “초급간부의 리더십 환경분석 및 개선방안,” 《군사논단》 49: 125-145.
- 김기석 (1988), “대군경험이 군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 《국방학술논총》 1: 496-539.
- 김병조 (2006), “21세기 한국 민군관계의 바람직한 모델,”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편, 2006년도 안전보장대학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의 민군관계: 역사적 변천과 미래》.
- 김주찬 (2003), “한국청년세대의 군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웅 (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에 따른 군 이미지 형성과 군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 서민수 (1995), “한국 신문에 나타난 군 이미지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근 (2001), “국내 신문에 반영된 군 이미지와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온만금 (2006), “해방이후 민군관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편, 2006년도 안전보장대학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의 민군관계: 역사적 변천과 미래》.
- 육군문화혁신기획단 (2007), “육군문화혁신,” 육군문화 혁신 기획단 PPT 자료.
- 육군본부 (2006), 《육군비전》.
- 육군본부 (2007), “Soft Power 증진을 위한 육군문화혁신,” 육군본부 PPT 자료.
- 육군사관학교 (1983), 《군인 이미지 조사자료》.
- 조세영 (2001), “공군에 대한 내·외부 공중의 이미지 비교 : Q 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갑 (2005),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북코리아.
- 한국언론연구원 (1993),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제3회 전국기자 직업의식조사》.
- 황대일 (1997), “대학생의 대군 이미지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지역 4년제 대학생의 대군 이미지 변동요인 분석,”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untington, S. P. (1957),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nowitz, M. (1964), *The Military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ew N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Nye, J. S. (2004), *Soft Power*. 홍수원(역),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 Stein, H. (1963), "Introduction," In H. Stein (ed.), *American Civil-Military Relations: A Book of Case Studies*. Birmingham: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Van Doorn, J. (1968), "Armed Forces and Society: Patterns and Trends," In J. Van Doorn (ed.), *Armed Forces and Society* (pp. 39-54). Haque: Mouton.

## Korean Army's Soft Power and the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

Seung-Mook Yang\*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1987 democratization movement, Korea is trying to build “democracy beyond democratization.” One of such efforts is developing more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based upon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sides. Despite the gradual increase of Korean people’s trust in the military for the last two decade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sort of distrust and contempt in the people’s attitude toward Korean Army. This paper put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rmy’s soft power in building new democratic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and the Army and suggests the following five measures to increase the Army’s soft power. First, all members of the Army must share their duties and core values. Second, the Army must change its one-way communication culture. Third, the Army should mitigate the oppressiveness which is frequently found in military organizations and encourage the members’ autonomy and creativity. Fourth, the Army should strengthen its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increase the members’ morale. Finally, the Army should be more open to the public and set up specific PR strategies to improve the Army’s image.

**Key words:** civil-military relations, soft power, Korean Army, defense reform 2020

---

\* Professor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political communication, journalism, history of communication studies, history of communication thought. E-mail: smyang@snu.ac.kr